

“전임자와 다르겠지” 은성수 압박하는 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키코공대위, 기자간담회 열어
불완전 판매 논란 입장표명 촉구
“분쟁조정 결과 기업 생존 달라져”

이번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키코(KIKO),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LF)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분쟁 조정 압박에 나섰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은행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코공대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검증과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은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대상인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발언으로 분쟁조정에 물타기를 해버렸다”며 “키코 사건에 대한 은 후보자의 견해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청문회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서를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사건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말했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피해를 봤다. 당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4개사(일성하이스코·남해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를 조사하고 이달 중 분쟁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피해기업의 생존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은 후보자부터 키코와 파생결합증권상품 등으로 많은 기업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키코공대위는 ‘제2의 키코사태’로 불리는 은행들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실대 박선종 법과대학 교수는 “키코는 파생상품으로 원본초과 손실위험이 있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 원본 100%손실위험을 가진 상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옵션매도의 위험을 인수하게 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3~5%까지 수익이나지만, 금리가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설문조사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PB의 아이디어로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세부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키코와 파생결합증권 상품 등을 은행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안팎에서는 은 후보자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신이 강한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비친 것과 달리 은 후보자의 경우 소통을 중시해 불협화음을 정리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 앞서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두 핵심으로, 양 기관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년2개월에 걸친 재조사후 분조위를 앞둔 막바지 단계인데다 파생결합증권 문제가 확대되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받은 업무보고 자료 및 주요 현안, 관련 참고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오르자 외화예금은 ‘뚝’

원·달러 환율 7월말 28.4원 상승
전월比 외화예금 7.1억만 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7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96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4월(632억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7월 들어 감소 전환했다.

달러화 예금(596억달러)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반 기업이 현물환 매도 등에 나서면서 전월보다 3억달러 감소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외화예금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축소됐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154.7원에서 7월 말 1183.1로 28.4원 올랐다.

엔화 예금(39억9000만달러)은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100엔 환율은 7월 말 1090.1원으로 6월 말(1072.4원)보다 상승했다.

유로화 예금(33억2000만달러)도 전월 대비 7000만달러 줄었다. 위안화 예금(12억7000만달러)은 8000만달러 감소했고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 통화예금(14억9000만달러)도 9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 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591억8000만달러)은 13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104억9000만달러)은 6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51억2000만달러)과 개인예금(145억5000만달러)이 각각 5억5000만달러, 1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캠코, 콜센터용역근로자 139명 정규직 전환

사회사 설립 통해 정규직 전환 합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에 대해 ‘사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난해 5월 캠코와 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캠코는 지난해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콜센터 고객 상담 및 스캔업무 용역근로자 139명의 정

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5차례, 실무협의회 9차례, 근로자 대표 간담회 등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사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사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이번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하나카드 해외 현지에서도 휴대폰 터치 결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

앞으로 비자 토큰(Visa Token) 기반의 모바일 터치 결제서비스(NFC)를 싱가포르, 런던, 호주 등 비자 컨택리스 규격을 지원하는 전 세계 NFC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카드와 비자(Visa)는 비자 토큰 서비스가 적용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카드의 간편결제 앱(애플리케이션)인 ‘하나1Q페이’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NFC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에서 로밍, 와이파이(도시락), 선불 유심을 이용하는 고객도 하나1Q페이가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해외에서도 NFC 결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하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앱 설치 후 ‘카드바로발급’을 통해 즉시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현지 일반 가맹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판기, 면세점 등 NFC 결제 지원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해외 대중교통 이용 시 탑승 시마다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과 하나1Q페이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과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 본사에서 ‘국내 최초 Visa 토큰이 적용된 해외 모바일 월렛 서비스 출시’ 론칭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자

한편 비자 토큰 서비스는 16자리로 이뤄진 카드 계정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토큰’이라 불리는 고유 디지털 식별자로 대체해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도용 범죄를 막는다.

/김희주 기자

우리카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할인 이벤트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청구할인

우리카드는 올해 추석 연휴에 맞춰 열차 승차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카드(법인, 선불카드 제외)로 열차 승차권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코레일과 SRT 각각 소지 카드 1장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야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코레일 이용 고객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SRT 이용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해당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은 이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예매할 수 있다. SRT도 22일과 23일에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 우리카드를 아껴주시는 고객들이 알뜰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승차권 할인 혜택과 함께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